

아침세평

김진구

광주시교육청 시민협력진흥원장



‘온마을이음학교’는 광주 마을교육공동체의 산실이다. 온마을이음학교 활성화를 위해 광산구를 시작으로 광주시의 모든 구청에 온마을이음센터가 설립됐다. 5개 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1일 남구청까지 모든 자치구에 이음센터가 설립돼 지역 중심의 교육자원 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 온마을이음센터는 온마을이음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정례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자치구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각 지역만이 가지고 교육 자산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현장에서 체험하고, 배운 것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음센터는 단순한 협의 공간을 넘어,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광주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와 함께 64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82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23개 학교가 협업학교로 참여하고 있다.

기고

유진

행복전원주간보호센터장



1988년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은 대규모 건축 및 도시개발 붐이 일어났다. 부모님 또한 그 시기에 도시의 건축 현장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시골 면사무소의 공무원 생활을 접고 광주로 상경했다. 그 여정의 끝엔 ‘언젠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요양원을 세우고 싶다’는 꿈도 있었었는데 실제로 도시 한 켠 예쁜 마을에 요양원을 세웠다. 처음에는 “어르신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돌보면 되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곧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직원 관리, 보호자 상담, 끝없이 쏟아지는 행정 처리와 서류 업무 등 현실의 무게는 기대 이상이었다. 무엇보다 돌봄 가족이 없어 요양원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그러던 중 ‘도심 내 넓은 마당’을 활용해 요양원과 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광주교육, 5개 구청과 온마을이음학교로 동행

이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 5·18의 역사 현장, 노벨문학상과 예향 광주의 문화, 남도 음식, 평두매슈지와 장록습지 등이 더 많은 광주 학생들의 교과서가 되고, 배움터가 될 것이다. 각 지역의 마을교육활동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단체 지도자, 학부모, 시민들도 광주 학생들의 선생님이자 스승이 돼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공동체의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게된다. 아이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널리 알려진 속담이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 많이도 들었던 말이다. 단순히 부모가 맡아야 할 양육이나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역할 분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실력이 미래라는 지평점을 향해 동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청과 시청, 동·서부 교육지원청과 5개 구청,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마을교육자치활동 활성화 사업이다. 이 시책은 교육청, 지자체, 학교, 마을이 교육이라는 끈으로 촘촘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지역과 학교가 상호 작용하면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는 이른바 협치의 교육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을 보면 광산구 이음센터는 ‘미래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호남대와 AI 로봇·드론, 창의 설계코딩 등 인공지능 분야, 광주보건대와는 첨단 의료기술, 국립과학관은 항공·

우주 분야의 최신 기술을 체험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구의 이음센터는 조선대와 협력해 ‘동구미래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의학, 약학, 상담심리 등 10여개 학과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얻는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 교수님과 대면 접촉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의욕을 가지게 됐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은 높아는 사례이기도 하다. ‘함께 서구 행복학교, 서구 진로바람회’ 등 삶과 배움을 연계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은 서구 온마을이음센터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문화, 예술, 역사 등을 체험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번엔 설립된 북구 이음센터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평두매슈지, 말바우시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남구 이음센터는 ‘꿈과 끼, 창의력을 키우는 남구학교’를 운영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이음센터는 지역의 고유한 물질적·정신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특색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교육과정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온마을이음학교 취지를 공유하면서 학부 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여러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 의견을 주면 지자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 미래로 가는 광주교육이 시민과 함께 가면서 더 다양한 시민협치의 교육모형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돌봄의 희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것을 지연시킬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실제로 같이 운영했을 때 시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았다. 자녀들의 형편상 부양이 어려워 아직 주간보호 급여로 재가에서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르신에게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족에게는 잠시라도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생소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간보호 내에서 24시간 보호가 가능한 ‘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우리 기관은 5년 전부터 가족휴가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기관으로 알려지게 됐다. 정기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보호자들도 많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해 12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이용률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추진한 간담회를 참석한 적이 있다. 그 때 생각보다 많은 기관 대표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활용하는 데에도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담회 자리를 통해 이 제도가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오아시스 같고 요양원 입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

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열심히 공유했다. 다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가 장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간 이용 일수가 11일이라 주말에 쉬고 싶은 가족들에게는 부족하다. 그리고 야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도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를 통해 보호자들은 부모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조금 더 헌신할 기회를 갖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노인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공감과 연대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필연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조금이라도 가족휴가제 이용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서비스 제공을 주저하는 기관을 돕기 위해 멘토 기관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부양의 시대다. 노인이 돼도 부양만 받는 존재가 아닌,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가는 그런 세상의 작은 디딤돌이 되고 싶다는 게 나의 작은 소망이다. 아울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취재수첩

‘광복 80주년’ 역사적 교훈 되새겨야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운동가인 신재호 선생의 말씀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 거의 관용구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이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190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돼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조약(을사늑약)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은 의병운동, 독립운동 등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호국정신을 실현하며 나라

를 지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이다. 일제의 민족차별과 억압에 저항한 학생 주도의 항일 민족운동은 1929년 10월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여학생 희룡사건이 불씨가 됐다. 이에 분노하고 일제의 폭압에 저항한 광주·전남 학생들은 11월3일 일제항거운동에 나섰다. 이후 학생독립운동은 전국 149개교, 5만4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여기에 일반 국민과 노동·농민 세력까지 가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해 일어났던 대표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현충시설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세워졌다. 올해는 독립정신을 문화예술과 첨단기술로 재해석한 새로운 형태의 보존문화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

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리고자 지난 1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1500명의 발걸음이 이어진 공연에서는 광주와 학기술원(GIST)과 AI를 활용해 제작한 창작 음원을 최초 공개하는 등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도에 나섰다. 15일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는 ‘2025 역사를 이어가는 고려인마을’ 행사가, 북구 다목적플 스테이지(STA·G)에서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열린다. 전남도는 오는 24일까지 도청갤러리에서 독립기념관 소장 전시물 30여점을 특별 전시전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군의 활약을 조명,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광복을 쟁취하기 위해 흘린 피와 노력의 역사를 전달한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단순히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OPINION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사설

‘관광 전남’ 이대로 안돼…품격 높여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고개를 숙였다. 여름 휴가철, 식당 불친절, 숙박업소 위생문제 등 논란이 잇따르자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김 지사는 12일 전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 진심어린 환대 문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 3대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등급제 인증 업소 중심 ‘특화구역’ 지정과 ‘안심 먹거리 존’을 조성하고 음식점에 종사자용 친절 앞치마를 보급하고 고령 자영업자 대상 위생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친절 문화 정착 등을 위해 흔받 가능 음식점을 확대하고, 1인용 식탁을 1000개 보급하고 불친절 민원 업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로 했다.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200여개 관광안내소에 ‘전남관광안내센터’ 확대 운영하고 ‘JN TOUR’ 앱 불편 접수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전남도의 이번 담화문과 각종 시책 추진은 최근 불거진 관광지의 불친절 논란 등을 불식시키고 관광서비스를 대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여수에서는 최근 흔차 식사하러 온 여성 유튜버가 식사중 업주로부터 호통과 구박을 당하는 불친절 영상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또 유명 장어식당의 진반 재사용이 제보로 적발됐고 유명호텔에서 투숙객에게 수건 대신 ‘겉레’를 제공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치루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이달 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LPG BMW 골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니 만큼 이제는 관광서비스 품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관광업 종사자들이 실천의지를 갖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따뜻한 응대도 필요하다.

해남 고구마 명품 브랜드화 성공 기대된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해남 고구마’의 명품 브랜드화가 추진된다. 고구마의 상품종 육성과 생산기술을 연구·보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고구마연구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선 것이다. 3만㎡ 규모로 조성된 이 센터는 상품종 육성과 병해충 진단, 저장·선별 기술, 가공 상품 연구 등 고구마 산업의 전 단계를 총괄한다. 또 연구시설과 노지 시범포를 갖추고 고구마 산업의 체계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담당한다. 외래종 고구마를 대체할 해남 특유의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기상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품질 저하에 대처하는 안정적인 생산기술 연구, 가공 상품의 연구개발 등이 이뤄진다고 한다. 사실 해남군은 600여 농가 2000여ha 재배면적에서 연간 3만4000여t을 생산하는 전남 최대 고구마 생산단지다. 특히 이곳 고구마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도 많아 지리적 표시농산물 42호로 등록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다. 여기서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상품의 원산지 때문에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공식화됐으며 국내의 경우 1999년 1월 개정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처음 도입돼 2000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 연구센터를 거점으로 상품종 개발부터 표준 재배 기술 확립, 가공산업 육성, 유통 일원화까지 고구마 산업의 전 단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고구마 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 또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고구마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식용과 가공용을 아우르는 고품질 상품종을 직접 개발하고, 다수확·내해재성·내병충성 품종으로 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또 양 관리, 재식거리, 병해충 방제, 수확 시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배부터 수확·저장·선별·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해 균일한 품질의 고구마를 생산하기로 했다. 해남군의 이같은 계획이 성공하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